산사와 트레킹의 만남 '범어사 힐링 템플레킹'

8월 30일, 범어사 선문화관 및 경내 일원

사찰음식 직접 만들어 먹고
연등에 가족 소원지 달기도
숲에서 소리 채집으로 교감
9~11월 추계 투어 이어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선보인 '힐링 템플레킹(Temple+Trekking)'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가을 특별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사찰음식 만들기, 연등 제작, 숲길 걷기를 결합한 하루 코스로 운영된 이번 체험은 모집 시작 3시간 만에 정원이 마감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8월 30일, 참가자들은 범어사 사찰음식연구소에서 사찰음식을 만드는 체험에 몰두하고 있었다. 표고버섯과 연근이 바삭하게 튀겨져 나오고, 정성껏 말아 올린 유부채소쌈이 접시에 담기자 참가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과 나눈다"는 기대감에 웃음이 번졌다.

차림상에는 참송이국, 쌈밥, 표고버섯연근탕수이, 도토리묵, 마구이, 유부채소쌈 등 다채로운 음식이 정갈히 차려졌다. 식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관게'를 합송하며 음식에 담긴 노고와 생명의 가치를 새겼다.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는 이들도 눈에 띄였다.

식사 후에는 과일찹쌀떡과 매실차가 후식으로 제공됐다. 아이들은 달콤한 맛에 즐거워했고, 한 참가자는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니 색다르고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점심 공양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짧은 명상에 참여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차분히 한 후, 연등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 완성된 연등에는 가족의 소원이 적힌 종이가 함께 매달렸다.

숲길 트레킹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각자 손에 지향성 마이크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풀숲을 스치는 곤충 소리까지 모두가 녹음 대상이 됐다. 한 참가자는 마이크를 나무 위로 들어 올려 숲의 숨결을 채집했고, 다른 참가자는 아이와 함께 난간에 기대어 소리를 찾아냈다. 이어 폰을 낀 채 작은 소리에도 집중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자연과 교감하는 즐거움이 묻어났다.

트레킹은 금정산 숲길 둘레길에서 진행됐다. 전문 스토리텔러가 범어사의 역사와 전설을 들려주었고, 일정 구간은 말 없이 걷는 명상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은 발걸음과 호흡에 집중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선보인 '힐링 템플레킹(Temple+Trekkig)'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참가자가 나무 위로 마이크를 들어 올려 새소리를 담고 있는 모습.

체험에 참여한 우진경(58) 씨는 "예전에는 불교 공부 위주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힐링 중심이라 새로웠다"며 "사찰음식도 직접 만들고 연등도 처음 만들어 보니 과정 자체가 수행처럼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3만원. 사찰음식과 전통 공예 체험, 전문 해설, 금정산 트레킹까지 포함된 일정임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금액이다. 이는 범어사와 부산시의 지원 덕분으로, 불교문화 체험과 지역 관광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가족 단위 참가자가 다수 몰린 것도 이러한 접근성과 공공 지원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부산관광공사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지원하는 범어사 힐링 템플레킹의 하계 투어는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추계 투어는 9월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이어진다. 추계 투어에서는 참가자가 난이도별 트레킹 코스를 선택해 산행을 즐기고, 지향성 마이크를 활용해 숲의 소리를 직접 채집하는 체험이 마련된다. 활동을 마친 뒤에는 사찰음식 정찬과 기념 굿즈가 제공돼 관광과 체험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범어사는 "템플레킹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라며 "계절마다 다른 금정산의 풍광과 범어사의 전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메리츠화재 녹색협약

9월 1일, 기업 첫 동참
환경보살의 길 실천 다짐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9월 1일 메리츠화재동부산본부(본부장 이병철)와 '녹색기업 실천협약'을 체결하며 불교계와 기업이 함께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의 길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불교환경연대의 녹색기업 운동에 동참한 첫 사례다.〈사진〉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비닐봉지를 줄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본부장은 "작은 힘이지만 메리츠화재동부산본부에서 먼저 일회용품 줄이기와 같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환경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서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비닐·플라스틱 절감 △빈그릇 운동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사용 △정기적인 환경교육·캠페인 등이 담겼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숭림사·종상 대종사 문도회, 장학금 전달

9월 2일, 동국대 WISE캠퍼스에



부산 숭림사(주지 대휴 스님)와 불국사 종상 대종사 문도회(대표 성행 스님)가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불교 청년 인재 양성에 뜻을 모았다.

숭림사 회주 진철 스님은 9월 2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불교동아리 재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총 2억원을 기탁한 진철 스님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잘 활용해 학업과 수행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상 대종사 문도회도 5000만원을 기탁하고, 불교동아리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수여했다.

문도회 대표 성행 스님은 "종상 대종사의 가르침은 베푸는 삶에 있다. 그 뜻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스님들의 삼보정재가 학생에게 삶의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황련사, 일본군 '위안부' 84위 영가 천도재 봉행

8월 30일, 혜원상생콘서트도
생명평화제전본부 공동 주최

'선망 일본군 위안부 각렬 영가(先亡 日本軍 慰安婦 各烈 靈駕).'

불단 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84위 영가의 이름이 새겨졌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황련사(주지 정산 스님)가 8월 30일 봉행한 일본군 '위안부' 천도재에서다.〈사진〉 목탁 소리와 염불이 이어지는 동안 참석자들은 합장한 채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억울한 넋을 함께 기렸다.

천도재가 끝난 뒤 황련사 마당은 혜원상생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로 가득 찼다. 조대일 국악인과 남산놀이마당이 선보인 '열림북'은 힘찬 장단으로 공연의 문을 열었고, 이어진 무대들은 추모와 평화의 메시지를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풀어냈다.

김미자의 '청수한동이'와 이노연의 '회심바라승무'는 불교적 장엄미 속에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했다. 낭독극 '을밀대 지붕 위에 강주룡'에서는 여성 노동운동가의 투쟁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돼 관객을 몰입시켰다.

안혜경 음악가와 방영식 목사가 함께한 '노래 한마당'은 평화와 연대를 노래했고, 독립군과 박차정 장군을 기리는 무대가 이어져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마지막 순서로 창작탈춤패 지기금지의 '대나무 신칼 못동춤'이 장단을 타고 펼쳐지며 공연은 절정을 맞았다.



정산 스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15세도 안 된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전쟁터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었지만,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식을 안고 살아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임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불교의 자비로 그 고통을 보듬고 치유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추모재와 혜원상생콘서트는 황련사와 민족미학연구소 생명평화제전추진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지역 기업과 단체들이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불교TV, 신작 찬불가 발표회

신작 찬불가 30곡 중 8곡 공개



BTN불교TV(사장 구본일)가 개국 30주년을 기념하는 신작 찬불가 발표회를 8월 30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개최했다.〈사진〉

부산·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BTN불교TV남성중창단(단장 박준홍)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연꽃, 나를 피우다'라는 주제로 신작 찬불가 30곡 중 8곡을 대중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다.

박준홍 단장은 "신작 찬불가를 선보일 전국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곡을 각 지역 사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과 함께 불러 보는 시간을 가지며 찬불가를 통한 포교활성화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